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5. 23. ~ 05. 29.

# 전남농업정보

86

VOL

## 기상전망

## 농산물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 감자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수출 공동브랜드 'NH K-farm' 으로 해외시장 공략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양파아삭기 이용 조 가계정식 시 재배방법별 생육 및 수량성

· 이열대채소를 활용한 쿠키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정책동향

· 기후변화 대응 전남 포도산업 발전 지원

· 2016년산 국산 두류(콩 · 팥 · 녹두) 수매 확대 추진

## 해외농업정보

· 전남에서 처음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적겠음

###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8

- ▶ 배추·무·감자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3

- ▶ 순천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21일 정식 개장
- ▶ 광양시, 매실 5천톤 판매 MOU 체결 후 첫 출하
- ▶ 담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농업 인력난 해소 '일조'
- ▶ 장흥군, 밥맛 좋은 쌀 생산에 '박차'
- ▶ 강진군, 여주, 하우스 조기 재배 본격 수확
- ▶ 무안군,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 본격 운영
- ▶ 장성군, 잡초먹는 '새끼우렁이'로 건강한 쌀 키운다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0

- ▶ 수출 공동브랜드 'NH K-farm'으로 해외시장 공략
- ▶ “고려인삼 규제완화 통해 수출 확대 도모”
- ▶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일본 14톤 수출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4

- ▶ 양파이식기 이용 조 기계정식 시 재배방법별 생육 및 수량성
- ▶ 남부지역 조 기계정식에 적합한 육묘용 상토의 생육 및 수량
- ▶ 아열대채소를 활용한 쿠키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음용 편리한 혼합 액상녹차 제조방법
- ▶ 아열대채소 아티초크 꽃봉오리 꽃꽂이 소재로 개발
- ▶ 절화용 작약 수확 후 처리방법 개발
- ▶ 예쁜가는배고치별 이용해 밤나방류 유충 잡는다
- ▶ 농약 포장지의 약제 표시기호 확인하세요
- ▶ 오디 위생관리 손쉽게 따라해 보세요
- ▶ 기능성·수출용 버섯 품종 개발로 보급률 향상 이끈다

## ❁ 정책 동향 ..... 38

- ▶ 기후변화 대응 전남 포도산업 발전 지원
- ▶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 확대 추진
- ▶ 2016년 쌀·밭직불금 신청농가 늘어



## ❁ 해외 농업정보 ..... 42

- ▶ 전남에서 처음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 ▶ KOPIA 새마을 운동으로 전기 황무지가 옥토로
- ▶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로 뭉쳐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농업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5. 2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혼조세를 보인 후 기술적인 매도세 유입으로 금일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금주 초반 대두 및 대두박의 강세로 인해 상승세를 보인 후 전일 2% 이상 급락하였으며, 이후 금일 기술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대두박 강세로 일부 가격지지를 받았으며 금일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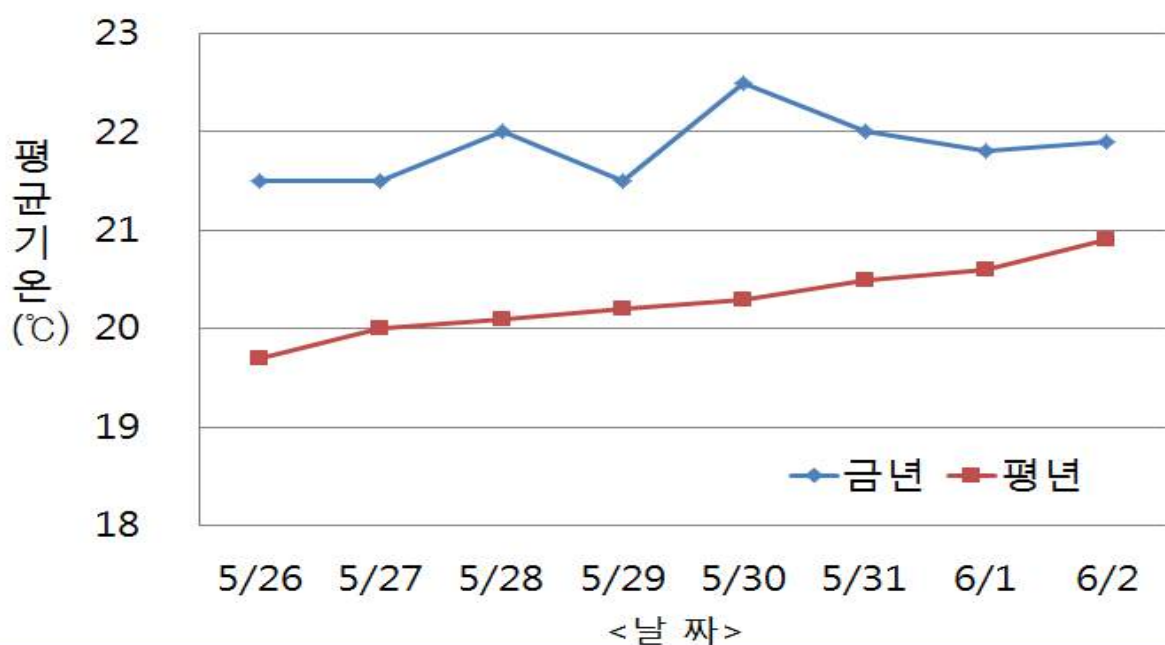
- ▶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 참가하세요
- ▶ 농촌진흥청, 어려운 농업용어 알기 쉽게 순화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8	20.3	1.5	27.9	26.3	1.5	15.8	15.1	0.7	3.1
5. 26.(목)	21.5	19.7	1.8	28.0	25.6	2.4	15.0	14.6	0.4	1.9
5. 27.(금)	21.5	20.0	1.5	26.0	26.1	-0.1	17.0	14.8	2.2	1.8
5. 28.(토)	22.0	20.1	1.9	28.0	26.0	2.0	16.0	15.0	1.0	2.3
5. 29.(일)	21.5	20.2	1.3	28.0	26.3	1.7	15.0	15.0	0.0	2.4
5. 30.(월)	22.5	20.3	2.2	29.0	26.5	2.5	16.0	15.1	0.9	3.4
5. 31.(화)	22.0	20.5	1.5	28.0	26.6	1.4	16.0	15.3	0.7	4.3
6. 01.(수)	21.8	20.6	1.2	28.0	26.6	1.4	15.5	15.5	0.0	4.4
6. 02.(목)	21.9	20.9	1.0	28.0	27.0	1.0	15.7	15.7	0.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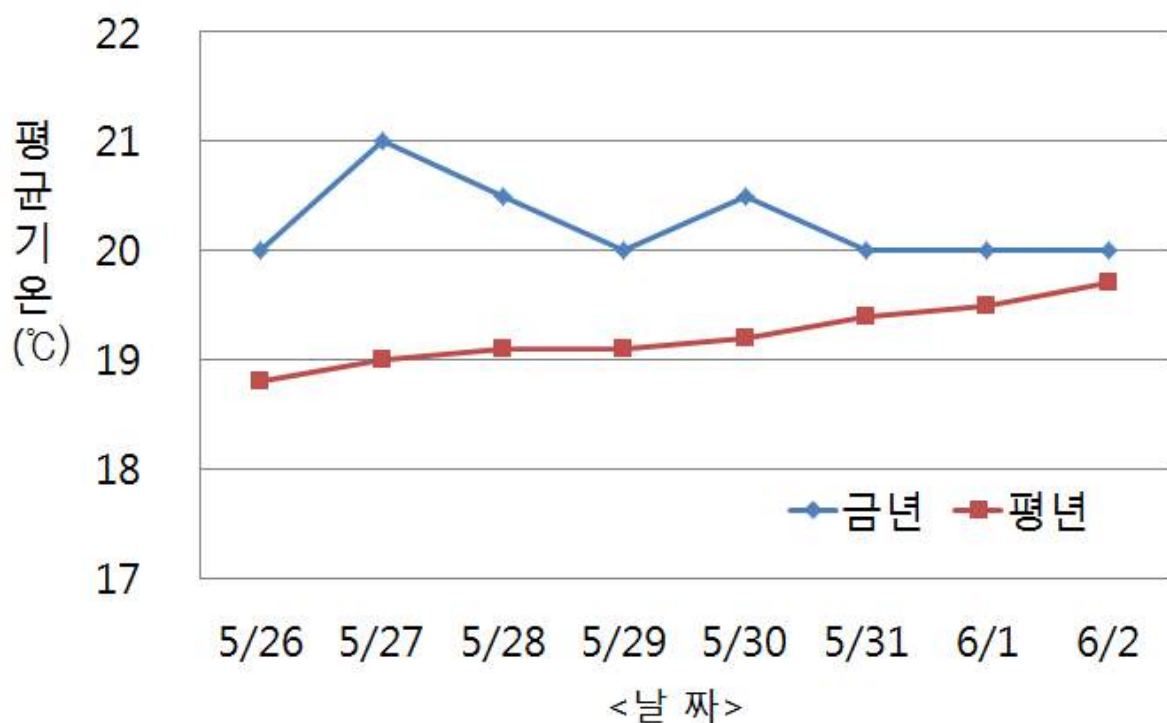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3	19.2	1.0	25.1	24.3	0.8	15.4	15.4	0.0	3.0
5. 26.(목)	20.0	18.8	1.2	25.0	23.8	1.2	15.0	15.0	0.0	2.1
5. 27.(금)	21.0	19.0	2.0	25.0	24.1	0.9	17.0	15.1	1.9	2.1
5. 28.(토)	20.5	19.1	1.4	25.0	24.1	0.9	16.0	15.2	0.8	2.6
5. 29.(일)	20.0	19.1	0.9	25.0	24.2	0.8	15.0	15.3	-0.3	2.6
5. 30.(월)	20.5	19.2	1.3	26.0	24.3	1.7	15.0	15.3	-0.3	3.4
5. 31.(화)	20.0	19.4	0.6	25.0	24.5	0.5	15.0	15.5	-0.5	3.7
6. 01.(수)	20.0	19.5	0.5	25.0	24.6	0.4	15.0	15.7	-0.7	3.8
6. 02.(목)	20.0	19.7	0.3	25.0	24.9	0.1	15.0	15.8	-0.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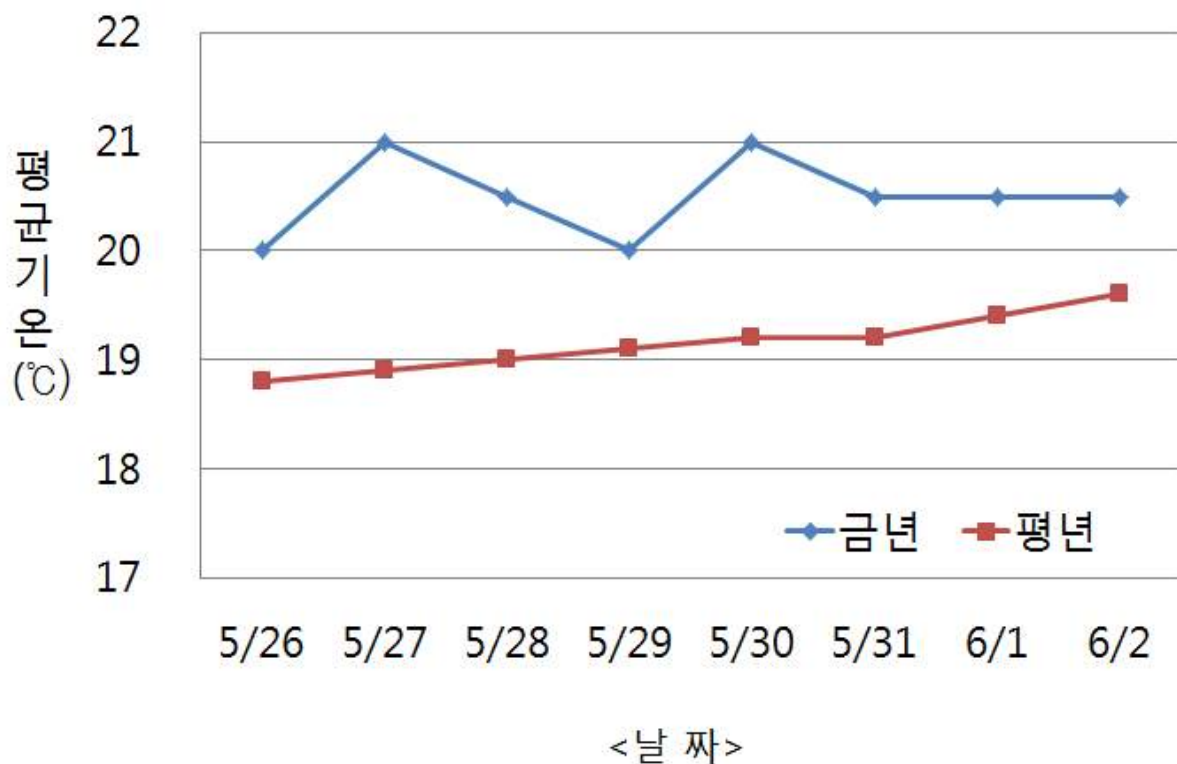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5	19.2	1.4	24.1	22.9	1.2	16.9	16.0	0.8	4.5
5. 26.(목)	20.0	18.8	1.2	24.0	22.6	1.4	16.0	15.7	0.3	4.3
5. 27.(금)	21.0	18.9	2.1	24.0	22.8	1.2	18.0	15.8	2.2	4.2
5. 28.(토)	20.5	19.0	1.5	24.0	22.8	1.2	17.0	15.9	1.1	3.9
5. 29.(일)	20.0	19.1	0.9	24.0	22.9	1.1	16.0	15.9	0.1	3.6
5. 30.(월)	21.0	19.2	1.8	25.0	22.9	2.1	17.0	16.0	1.0	4.4
5. 31.(화)	20.5	19.2	1.3	24.0	22.9	1.1	17.0	16.2	0.8	5.4
6. 01.(수)	20.5	19.4	1.1	24.0	23.1	0.9	17.0	16.3	0.7	5.4
6. 02.(목)	20.5	19.6	0.9	24.0	23.4	0.6	17.0	16.5	0.5	4.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배추 생산전망

- 시설봄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시설봄배추 출하는 4월 하순에 본격화되었으나, 최근 큰 일교차로 결구가 지연되면서 후반부에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조사
- 노지봄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노지봄배추 추정 생산량은 작년보다 17% 증가하나, 평년보다 28% 감소한 12만 8천톤으로 전망

#### □ 배추 출하전망

- 5월 봄배추 출하량 작년 동월보다 증가
  - 5월 시설봄배추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월 노지봄배추 출하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출하면적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배추 가격전망

- 5월 가격은 중순 이후 하락할 전망
  - 5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평균 도매가격은 노지봄배추의 본격 출하로 전월(14,920원)보다 낮은 8,500원 내외로 전망
  - 5월 상순에는 월동배추 저장 출하량이 적어 높은 시세를 유지하나, 중순 이후부터 터널봄배추 출하가 시작되어 가격은 하락할 전망



##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무 생산전망

#### ○ 시설봄무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증가

- 시설봄무 생산량은 1만 8천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9,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노지봄무 재배면적 작년보다 증가

- 금년 노지봄무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7월)와 금년 파종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37% 증가, 평년보다는 1% 감소할 것으로 조사

### □ 무 출하전망

#### ○ 5월 무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 5월 무 전체 출하량은 월동무 저장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27% 적을 것으로 전망

#### ○ 5월 시설·노지(터널)봄무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51, 18% 많을 것으로 조사

### □ 무 가격전망

#### ○ 5월 가격은 하순 이후 하락할 전망

- 5월 무 가락시장 상품 1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월동무 저장 출하량 감소로 작년(10,400원)과 평년(10,090원)보다 높으나, 전월보다 낮은 16,000원 내외로 전망
- 저장 월동무가 출하되는 5월 중순까지는 4월과 비슷하게 유지되나, 시설봄무 출하가 본격화되는 5월 하순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감자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감자 생산전망

#### ○ 봄감자 생산량 작년 대비 14% 증가 전망

- 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작년 대비 10% 증가한 17,075ha로 조사
- 봄감자 추정 생산량은 44만 3천톤 내외로 평년보다 6% 감소, 작년보다 14% 증가할 전망

### □ 감자 출하전망

#### ○ 5월 출하량 작년 대비 9% 증가 전망

- 5월 시설봄감자 출하량은 주산지인 김제·밀양을 중심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단수가 감소,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작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월 노지봄감자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작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감자 가격전망

#### ○ 5월 가격 작년 대비 하락 전망

- 5월 감자(수미) 상품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상품 49,050원)과 평년(상품 34,300원)보다 낮은 33,000원/20kg 내외로 전망
- 5월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량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노지 봄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상품 35,930원)보다 하락할 전망

\*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5. 2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23)	1주일전 (05/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80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8,500	186,267	↑ 8.3	↓ 19.5
	고구마(밤)	10kg	31,200	30,200	30,100	31,600	30,760	↓ 1.3	↑ 1.4
	감자(수미)	20kg	41,000	43,400	29,900	56,900	33,853	↓ 27.9	↑ 21.1
채 소 류	배추(봄)	1kg	1,140	1,200	1,470	1,040	497	↑ 9.6	↑ 129.4
	양배추	10kg	13,400	12,600	11,550	10,550	7,370	↑ 27.0	↑ 81.8
	오이(다다기계통)	10kg	10,333	14,667	19,500	14,500	18,180	↓ 28.7	↓ 43.2
	애호박	8kg	11,200	11,800	12,800	11,000	11,873	↑ 1.8	↓ 5.7
	토마토	10kg	16,400	17,800	27,950	24,100	21,487	↓ 32.0	↓ 23.7
	당근	20kg	33,000	34,000	27,400	29,000	32,787	↑ 13.8	↑ 0.6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24,500	820,000	832,000	↓ 13.4	↓ 14.7
	풋고추	10kg	37,200	41,000	37,400	46,250	42,877	↓ 19.6	↓ 13.2
	마늘(깐마늘)	20kg	175,000	175,000	169,000	104,000	115,707	↑ 68.3	↑ 51.2
	양파	20kg	13,800	13,600	25,000	14,100	13,567	↓ 2.1	↑ 1.7
	대파	1kg	2,220	2,430	2,323	2,110	1,541	↑ 5.2	↑ 44.1
	파프리카	5kg	15,200	17,600	24,600	22,550	21,093	↓ 32.6	↓ 27.9
	멜론	8kg	27,400	26,000	25,950	29,000	38,392	↓ 5.5	↓ 28.6
	방울토마토	5kg	14,400	14,600	21,650	18,750	16,704	↓ 23.2	↓ 13.8
	수박	1개	15,600	15,200	15,600	16,850	16,194	↓ 7.4	↓ 3.7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000	36,600	37,000	44,533	53,547	↓ 16.9	↓ 30.9
	배(신고)	15kg	44,400	44,400	44,000	41,150	49,787	↑ 7.9	↓ 10.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23)	1주일전 (05/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7,000	525,000	529,000	532,000	564,378	↓ 0.9	↓ 6.6
	느타리버섯	2kg	13,600	13,800	13,100	13,900	12,053	↓ 2.2	↑ 12.8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8,300	8,400	8,257	↓ 4.8	↓ 3.1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472	7,302	8,043	6,534	6,053	↑ 14.4	↑ 23.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31	2,002	1,931	2,201	1,998	↓ 7.7	↑ 1.7
	닭고기	1kg	5,333	4,942	5,313	5,252	5,701	↑ 1.5	↓ 6.5
	계란(특란)	30개	5,367	4,906	5,394	5,960	5,863	↓ 9.9	↓ 8.5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9	0.0	↑ 6.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5. 2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6,044 천원	5,859 천원	3,995 천원	↑ 3.2	↑ 51.3
	거세	6,769 "	6,586 "	5,293 "	↑ 2.8	↑ 27.9
송아지 (6~7월)	암	3,200 "	2,972 "	1,621 "	↑ 7.7	↑ 97.4
	수	3,861 "	3,631 "	2,355 "	↑ 6.3	↑ 63.9
육우(600Kg)		3,033 "	3,580 "	3,348 "	↓ 15.3	↓ 9.4
젖소수송아지(7일령)		336 "	309 "	176 "	↑ 8.7	↑ 90.9
돼지(110kg)		405 "	386 "	465 "	↑ 4.9	↓ 12.9
육계(원/kg)		1,373 원	1,238 원	1,527 원	↑ 10.9	↓ 10.1
계란(원/특란10개)		929 "	988 "	1,366 "	↓ 6.0	↓ 32.0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4년 경매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순천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21일 정식 개장

- 21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주차장에 자리한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순천만국가정원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 지상 1층 100평 규모의 직매장에는 지역 농가가 재배한 신선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총 320여 가지의 다양한 농산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판매한다.
- 매장운영은 시민주주 1,089명이 참여한 민관공동출자법인 순천 로컬푸드(주)가 운영하며 대표 이사와 본부장 등 직원 10명이 매장 관리 및 판매 등을 담당한다.
- 매장에서 상품 포장, 진열은 참여 농가가 직접 맡아 운영하며 신선 농산물의 경우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당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다음날 모두 수거한다.
- 시는 지난 6일부터 직매장을 임시 개장해 2주간 출하, 진열, 운영 판매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 6월에는 동문에 위치한 기 마을·사회적기업관을 리모델링해 하반기에 농가 레스토랑을 개장할 예정이다.
- 레스토랑이 개장되면 1일 유통체제로 팔리지 않고 수거했던 농산물이 식재료로 활용돼 농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다양한 품목 확보와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 가공센터도 건립한다.
-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서면 구만리 일원에 1000㎡ 규모로 건립되는 가공센터는 오는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 출처 : 순천시



## ■ 광양시, 매실 5천톤 판매 MOU 체결 후 첫 출하

- 광양매실 첫 출하식 갖고 매실시장 선점 노력 -

- 광양시는 5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농협중앙회 청과사업국과 광양매실 판매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청과사업국 이철호 국장,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 임창택 외 지역농협장, 광양시 연합사업단 등 20여 명이 참여해 광양매실의 판로확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광양시는 올해 매실 생산 예상량이 약 1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MOU 체결로 총 생산량의 절반인 약 5천톤 이상을 농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가공용 매실과 직거래 물량을 감안하면 이번 MOU 체결로 판로 확보가 시급한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어 오후 4시에는 광양매실 주산지인 다압농협에서 빛그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가졌다. 첫 출하 광양매실 약 20톤은 농협중앙회 청과사업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여 국내 매실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광양시는 앞으로 E-마트, NC백화점 등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입점 판촉활동 전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 매실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시식회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광양매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광양시

## ■ 담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농업 인력난 해소 ‘일조’

- 농산업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 유희 인력 줄이고 지역 경제 살리고 -
- 담양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농업 인력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 지난해 6월 개소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전화 상담으로 농산업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 교통, 보험, 안전용품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손 필요농가 203, 일자리 참여인력 435명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8,276건의 일자리를 연계해왔다.
- 덕분에 농가에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소개소에 비싼 중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인력을 구할 수 있게 됐으며, 관내 유희 인력과 도시민들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현재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연중 신체 건강하고 농사일이 가능하며 귀농을 꿈꾸거나 농사일에 관심이 있는 군민은 누구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061 - 382 - 8219)하거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를 찾아 일자리를 신청하면 된다.
- 이와 함께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필요 인력과 일정, 임금, 작업 내용 등을 정해 농작업일 7일 전에 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 출처 : 담양군

## 장흥군, 밥맛 좋은 쌀 생산에 '박차'

- 장흥군(군수 김성) 쌀 적정생산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홍보와 기술지원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쌀 생산성 향상과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수성 품종보다는 밥맛이 좋으며 품종 위주로 재배하고 밀식재배 보다는 적정 과종량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질소 표준 시비량인 10ha당 9kg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에서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리플릿,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쌀 적정생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기 영농 추진도 지도하고 나섰다.
- 보리와 밀 등의 맥류를 적기 수확하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 모내기를 실시하도록 농가에 알리고 있으며, 이 시기에 맞춰 봄철 농촌 일손 돕기도 추진하고 있다.
- 봄철 농촌 일손 돕기는 알선창구를 개설해 오는 5.20.~6.20.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밥맛은 올리고, 병해충과 벼 쓰러짐 등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며, “적기 영농추진을 통해 명품 장흥쌀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 강진군, 여주, 하우스 조기 재배 본격 수확

- 이중하우스 재배로 노지보다 50일 빨라 -

- 전남 강진군에서는 타지역보다 따뜻한 기후를 활용, 2중 비가림 하우스에 여주를 심어 지난 10일부터 수확하기 시작했다. 일반 노지 재배시 6월 말부터 수확하는 것에 비하면 50일 가까이 일찍 수확하는 셈이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주를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 올해까지 40농가 9ha의 면적을 확보하여 전남 최대 주산지로 발돋움했다.
- 사업비의 일부는 비가림하우스에서 조기 재배를 하도록 지원하여 타지역보다 일찍 수확하여 시장을 선점하도록 유도하고 농업인들 개인이 건조여주를 생산하여 여유있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체와 함께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하여 타지역에는 생소한 여주 커피·발효액 등을 시판할 수 있도록 했다.
- 수확한 여주는 대부분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는 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시설채소 고온 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개분무시스템, 쿨네트차광, 지하수 순환환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여름철 하우스 여주재배에도 고온피해가 없도록 했다.
- 군은 앞으로 여주 가공식품 생산 확대와 체험농장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 출처 : 강진군

## ■ 무안군,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 본격 운영

- 농번기철 만성 일손부족 현상 해결 기대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농번기철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인력 수급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무안군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무안군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는 숙소, 샤워실, 식당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무안 외 지역에 거주하는 영농일자리 참여자에게 무료숙소를 제공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게 영농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 지난해 상반기에는 469명에게 일자리를 알선(숙소이용 445명)하고, 하반기에는 363명에게 일자리를 알선(숙소이용 178명)하는 등 총 832명에게 시설을 이용한 영농일자리를 제공하였다.
- 무안군 관계자는 “양파·마늘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에 대해 영농인력을 알선하고 있고, 동 시설 이용문의와 일자리알선 희망자가 늘고 있으며, 서울·경기·충남·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영농일자리 참여자가 무료 숙소를 이용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인력 공급과 인건비 안정으로 지역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5월말 조선대학교 학생 50여명의 농활활동을 시작으로 동 시설을 이용한 대학생 농촌 일손 돕기 활동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는 해제면 유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농일자리 참여자는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 453 - 5856)로, 일손필요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무안군



## ■ 장성군, 잡초먹는 ‘새끼우렁이’로 건강한 쌀 키운다

- 5월부터 논 3,811ha 새끼우렁이 40톤 투입 -

- 장성군은 벼농사가 본격화되는 5월 중순부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입해 새끼우렁이 공급을 희망한 2,584농가의 논 3,811ha에 새끼우렁이 40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새끼우렁이는 물속에 있는 잡초를 먹는 습성이 있고, 벼 피해가 거의 없어 유기벼 재배농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생물학적 제초농법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썬레질(정지작업) 직후 알에서 부화한 후 50여일 동안 자란 우렁이를 10a당 1.2kg(1,200여 마리)를 논에 뿌려 우렁이를 투입해 벼가 자랄 때 까지 함께 키운다.
- 또한 별도의 제초작업이 필요 없어 농업경영비나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도 매우 커 친환경농가 뿐 아니라 일반농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농법으로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새끼우렁이의 제초효과는 99%에 이른다.
- 새끼우렁이 공급은 지역농협을 통해 이뤄지고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정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또한 농가들에게 자부담을 10%를 부담시켜 무분별한 공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량의 우렁이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했다.
- 군 관계자는 농가에게 벼논에 썬레질 직후(5월 하순~6월 상순) 골고루 뿌리고 모내기 후에도 우렁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논물이 잠겨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리 지역의 새끼우렁이 농법은 벼농사의 잡초제거 효과 및 제초비용절감, 농업생태환경 보전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어 앞으로 새끼우렁이 농법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장성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수출 공동브랜드 'NH K-farm'으로 해외시장 공략

- 농협, 농식품 수출 공동브랜드 런칭 및 육성계획...2020년까지 10억달러 수출 목표 -

- 농협중앙회가 농식품 수출 공동브랜드 'NH K-farm(가칭)'을 런칭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17일 브리핑에서 NH K-farm을 선키스트·제스프리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의 이니셜인 'NH'는 품질과 신뢰를, 'Farm'은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함을 상징한다. 농협은 향후 주요 수출국의 주한대사 등을 초청해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고 500억원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0억달러의 NH K-farm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수출농협을 중심으로 수출공선회를 조직, 수출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수출연합조직을 육성해 수출물량을 규모화 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수출활성화 자금지원 규모를 2020년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수출단계의 경우 중앙회는 브랜드 개발 및 수출 전략 수립, 경제지주 및 계열사는 상품개발 지원과 엄격한 품질관리 업무 담당, NH무역은 수출 관련 제반 사항 처리 등을 각각 맡는다. 특히 안성물류센터의 소포장, 전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해 수출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외에도 농협홍삼·양곡·식품 등의 상품개발 능력, 농협식품연구원의 품질관리 역량을 모아 공동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고려인삼 규제완화 통해 수출 확대 도모”

- 날개포장 허용·수출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

- 정부가 우리 인삼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업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종전과 달리 날개포장 허용, 질소포장 등 신규 포장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도입,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이달 16일부터 개정 및 적용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한 우리 인삼의 수출, 소비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인삼업계가 요구했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고려인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일정 부분 합리적인 품질기준은 유지하면서 창의성이 높은 신상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는 △포장단위 규제 완화 △신규 포장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적용 범위 확대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면세점 판매 인삼류 등급표시 통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간 인삼류 포장단위는 포장중량과 인삼크기별로 규격이 정해져 획일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날개별 포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의 홍삼·흑삼 특대 규격 제품은 14·19편급 등 두 종류만 있었으나, 프리미엄 인삼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9편급의 포장규격이 신설됐다.
- 인삼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개정 이전에 진공포장 유무에 의해 달리 적용됐다. 진공포장으로 처리된 홍삼·태극삼·흑삼의 경우 10년 이내, 진공포장처리가 안 된 제품은 3년 이내였다. 하지만 이는 질소포장 등 신기술에 따른 포장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이 많아,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전제 하에 질소·캔포장 제품은 최대 20년까지(백삼은 10년 이내)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됐다.

-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인삼류에 대해 자국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유통돼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인삼류 검사증명서 외에는 별다른 발급 규정이 없어 우리 인삼 수출업체의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이에 정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인삼류 검사증명서 뿐만 아니라 인삼산업법에 의거해 적합하게 제조, 유통, 판매되는 수출용 인삼류에 대한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 수출영문증명서 2종의 신규 발급을 확대했다.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절편인삼은 현재 천삼·지삼·양삼 등 세 등급으로 표시됐으나, 절삼인삼은 따로 등급표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이용이 활발한 것을 고려해, 절삼인삼도 등급표시가 적용된다.
- 이 외에 백삼과 태극삼의 경우, 기존에는 송삼(1등급), 죽삼(2등급), 매삼(3등급)으로 나눠 품질검사가 실시됐는데 이는 홍삼·흑삼의 품질검사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백삼·태극삼의 품질검사 등급을 홍삼·흑삼과 동일하게 천삼·지삼·양삼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종 개정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일본 14톤 수출

- 정읍 명품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일본에 지속 수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정읍 이평면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김경태(62)씨는 올해 모두 14동(동당 200여평)의 비닐하우스에서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 재배에 여념이 없다.
- 김 씨는 지난 1월 정식에 들어간 씨 없는 수박(10동)을 수확, 지난 4월 27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7톤씩 모두 14톤을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한 수박은 정읍시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무게 6~8kg, 당도 11°Brix 이상만을 엄선한 수박이다.
- 매년 정읍에서 가장 빨리 수박을 수확하고 있는 김 씨는 축성재배를 위해 5중 하우스를 설치, 올해 1월과 5·8월 등 연간 3회에 걸쳐 수박을 정식 및 수확하며, 지난 2014년부터 탐프루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편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 생산을 위해 SWT(Seedless Watermelon Technology) 꽃가루 및 축성 재배를 위한 보온전열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수박 재배현장을 찾아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온도관리 요령 및 병해충 방제기술, 당도 향상기술 지도에 힘쓰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양파이식기 이용 조 기계정식 시 재배방법별 생육 및 수량성

####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양파이식기 이용 조 기계정식을 위한 재배법

품 종	육묘방법	재식밀도(10a)	시비량(kg/10a) (N-P <sub>2</sub> O <sub>5</sub> -K <sub>2</sub> O-퇴비)
삼다찰	트레이육묘 (448구)	33,000주, 4열재배 120×10cm, 주당1본	9-7- 8-1,000

○ 조 기계정식시 재배방법별 생육 및 수량성

처 리	잡초발생량 (g/ m <sup>2</sup> 당)		이삭중 (g)	이삭당 종실중(g)	조 곡 천립중(g)	이삭수 (이삭/주)	수량 (kg/10a)	지수
	생중	건중						
4열 재배	294	78	24.8	13.6	2.5	1.0	421	100
2열 재배	426	103	23.3	12.8	2.6	2.1	414	98
C.V(%) .....							4.8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조 기계재배 신규계획 농가의 영농상담을 통해 개발내용 보급
- 조 재배 주산단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선발품종 실증재배 추진
- 조 재배농가의 생력재배기술 도입 등 경영개선 노력 확산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4열 재배 시 삼다찰이 421kg/10a으로 2열 재배에 비해 2% 증수됨
- 잡곡류 안정생산 및 재배면적 확대에 자급을 향상 : ('10) 26.9→('15) 30.4%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용순

## ■ 남부지역 조 기계정식에 적합한 육묘용 상토의 생육 및 수량

###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 조 기계재배에 적합한 재배법

품 종	육묘방법	재식밀도(10a)	시비량(kg/10a) (N-P <sub>2</sub> O <sub>5</sub> -K <sub>2</sub> O-퇴비)
삼다찰	트레이육묘 (448구)	120×10cm, 2열 (조간 60cm, 2본/주)	9-7 - 8-1,000

#### ○ 조 육묘용 상토종류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14 ~ '15)

상토 종류	이삭중 (g)			이삭당종실중 (g)			수량(kg/10a)			지수
	'14	'15	평균	'14	'15	평균	'14	'15	평균	
바이오	26.6	23.5	25.1	11.5	12.7	12.1	385	419	402	100
하나로	25.9	23.6	24.8	11.4	12.9	12.1	382	398	390	97
한아름	25.8	22.9	24.4	11.2	12.6	11.9	351	385	368	92

C.V (%) ..... 8.0 ..... 7.1 ..... 6.9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바이오 상토가 이삭당 종실중이 12.1g, 경태 8mm, 이삭길이가 28cm로 10a당 402kg으로 양파정식기(OP-4-KR)를 이용한 기계정식에 유리함.

○ 잡곡류 안정생산 및 재배면적 확대에 자급율 향상 : ('10) 26.9→('15) 30.4%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용순

## ■ 아열대채소를 활용한 쿠키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 아열대채소를 활용한 쿠키 체험 프로그램의 특징

- 체험상품 품질 및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족단위, 각종 단체활동, 방과 후 학습활동과 연계한 연중 운영이 가능함

#### ○ 아열대채소 쿠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 결과

- 체험 시간은 1시간, 체험 비용은 1만원이 적정하고, 체험 장소는 농촌 현장 50.7, 학교 38.6, 공공시설 10.1% 순으로 선호함
- 아열대채소 쿠키 제조 시 채소분말 첨가량은 인디언시금치잎 10, 모로헤이야 잎 5, 오크라열매 분말 7%가 품질과 기호도 우수



쿠키 체험프로그램 운영



아열대채소 쿠키 상품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 농가형 체험프로그램 모델 제시로 농업의 6차 산업화 도모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 ■ 음용 편리한 혼합 액상녹차 제조방법

###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 액상녹차 혼합차 제조과정

- 혼합 액상차 제조공정 : 녹차 6kg+물 50L(90℃, 3시간) 추출물 30L  
→ 녹차추출물 1.8L(27.61%)+액상과당 4.2L(64.42%) → 2단계+오렌지 0.12,  
사과엑기스 0.3, 녹차향 0.03(7.97%) 액상 원액 제조
- 음용 적정 비율(액상녹차 원액 : 물) 1 : 5, 기호성 양호( $12 \pm 1^\circ \text{Brix}$ )



액상녹차 시제품



액상차 당배합



액상차 평가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여름, 가을 찻잎 이용 혼합 액상차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 엽차 800천원/10a → 혼합액상차 2,400천원/10a(300%증)
- 잎녹차 위주 생산에서 액상차 음료시장 증가에 따른 대체상품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정

## ■ 아열대채소 아티초크 꽃봉오리 꽃꽂이 소재로 개발

- 꽃꽂이 소재로 개당 3천원 이상 판매 가능, 농가 부가소득 기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급 호텔 음식요리에 사용하고 있는 아열대채소 아티초크 화퇴(꽃봉오리)를 꽃꽂이 등 화훼용 소재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아티초크는 브로콜리처럼 크기가 10~15cm, 무게가 200~300g 정도 되는 화퇴(꽃봉오리)를 수확하여 살짝 삶거나 불에 구워서 양념 소스나 샐러드 등과 곁들여서 와인 안주 등 고급 호텔에서 채소 요리 소재로만 이용되고 있다.
- 이에 도 농기원에서는 아티초크 화퇴의 이용성 증대를 위해 화퇴(꽃봉오리) 수확시기가 지나 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퇴를 줄기 포함 60~70cm 크기로 잘라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꽃꽂이 소재로써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화훼용 소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시장 반응에 따라 5월 하순부터 시장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 이렇게 화훼용 소재로 시장에서 소비가 가능하면 농가 생산량의 50~60%만 채소용 소재로 판매하던 화퇴를 이용,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80~90%까지도 판매율을 높여 재배 농가적 측면에서는 판매율 향상에 따른 부가 소득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아티초크 꽃은 엉겅퀴와 비슷하고 색깔은 청색이며 화퇴는 “씨나린(cynarin)”이라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신장과 간장의 생리대사 기능을 개선하거나 소변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이뇨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현재 아티초크 시중가격은 kg당 10,000원 정도이지만 소비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역 몇몇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 아티초크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및 관리노력이 비교적 적게 들뿐 아니라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외국 도입 아열대채소 중에서 유일하게 남부지방에서 연료비 없이 겨울재배를 할 수 있어 유통, 소비시장만 확보된다면 틈새 소득 작목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 이러한 아티초크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초본성 다년생 식물로 가을에 심으면 월동 후 이듬해 4~6월 사이에 화뢰를 수확하고, 7, 8월에는 식물체가 고사하며 9월 상순에 다시 새순이 나와 성장하는데 남부지방에서 노지재배는 월동이 힘들고 시설재배에서는  $-4^{\circ}\text{C}$ 까지도 무가온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다.
- 한편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원예연구팀장은 “아티초크 화뢰의 화훼용 소재로 이용성 확대를 통해 시장 선점과 아울러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무가온 시설재배가 가능한 우리지역을 아티초크 주산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절화용 작약 수확 후 처리방법 개발

- 출하시기 조절과 품질향상으로 노동력 분산과 소득 안정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대표적인 약용 작물인 작약의 절화(꽃꽂이용) 생산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저장과 수확 후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작약은 국내에서는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크고 화려한 색상으로 결혼식 등 각종 행사의 장식용으로 연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진지역을 중심으로 약 7ha가 재배되어 국내 재배면적 10ha의 70%가 전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 그러나 작약은 꽃을 수확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가량으로 대부분 일시 채화되어 시장에 출하되어 전국적으로 수확이 집중되는 5월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저장을 하더라도 저장기간이 짧고 상품성이 떨어지고 선별과 저장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노동력이 집중되어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저장 방법을 개선하여 별도의 정선작업 없이 신문지로 피복해서 저장고에 수평으로 저장하면 작업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저장 기간도 기존 2주에서 8주로 늘어나 노동력이 분산되고 수확 후 처리제를 선발, 활용하여 절화 수명과 상품성을 향상시켜 재배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연구사는 “절화용 작약의 수확 후 관리기술 뿐 아니라 개화시기를 조절하여 생산시기를 분산시키고 품질을 고급화시켜 일본·대만 등 작약의 이용이 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예쁜가는배고치벌 이용해 밤나방류 유충 잡는다

- 농촌진흥청, 농가 보급 예정... 나방류 알·유충기생봉에도 사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토착 천적 '예쁜가는배고치벌(Meteorus pulchricornis)'을 이용해 시설 작물에 피해를 주는 밤나방류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밤나방류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나비목 해충으로 담배거세미·담배·과밤·도둑나방 등이 있다. 특히 담배거세미나방은 각종 과채류의 꽃이나 잎에 피해를 주는데, 5령 유충이 되면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 기존 나방류 천적으로 쌀줄·명충·송충알벌 등 알벌류 천적이 사용되고 있으나, 수명이 3~5일로 짧고 기생 능력이 떨어져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다.
- 이번에 밤나방류 방제에 사용되는 예쁜가는배고치벌은 나비목 해충의 유충 내부에 단독으로 기생하는 천적으로, 알-유충-번데기-성충의 성장과정을 거친다.



▲ 산란중인 예쁜가는배고치벌



▲ 담배거세미나방 유충에서 탈출하는 유충

- 25℃ 기준으로 알부터 번데기까지 발육시간은 18일 정도 걸리며, 성충은 평균 8일 동안 생존한다. 성충의 1일 산란 수는 평균 5개로 일생동안 132개의 알을 낳는다.
- 담배거세미나방에 예쁜가는배고치벌이 기생해 8일이 지나면 기생하지 않은 개체에 비해 담배거세미나방의 섭식량은 약 30%까지 감소하고, 10일 이후에는 70% 이상 줄어든다.
- 담배거세미나방이 5령 유충이 되면 내부에서 성장한 예쁜가는배고치벌 유충이 몸 밖으로 나와 고치가 되는데, 이때 담배거세미나방은 죽는다.
- 방제 실험 결과, 피망 온실에 담배거세미나방 10, 예쁜가는배고치벌 1의 비율로 방사했을 때, 7주 후 예쁜가는배고치벌을 방사하지 않은 온실에서는 해충 1마리당 5마리의 유충이 발생했으나 방사한 온실에서는 2세대 개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이에 기존의 알벌류 천적과 더불어 밤나방류 유충에 기생하는 예쁜가는배고치벌을 함께 사용하면 밤나방류 방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예쁜가는배고치벌을 이용한 밤나방류 방제 기술의 농가 보급을 위해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했다.
- 투명한 아크릴 재질의 사육 상자에 흰콩을 심은 화분과 담배거세미나방, 예쁜가는배고치벌을 넣고 기르는 기술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최병렬 연구관은 “이번에 개발한 방제 기술로 시설 과채류 주요 해충인 밤나방류를 친환경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잡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 예쁜가는배고치벌의 생태적 특성과 대량사육 기술을 바탕으로 농가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약 포장지의 약제 표시기호 확인하세요

- 같은 작용기작 농약은 피해야... 약제저항성 발생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약제저항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약제를 뿌리기 전에 포장지에 표시된 약제 작용기작을 꼭 확인해 표시기호가 다른 약제를 뿌릴 것을 당부했다.
- 약제저항성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작(작용원리)의 약제들을 연속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방제할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약제와 비교해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선택하거나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4년 11월부터 농업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제별 작용기작 표시제도'를 우리 여건에 맞도록 개선해 약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약제 포장지의 표시기호로 살균제는 가, 나, 다 순, 살충제는 1, 2, 3 순, 제초제는 A, B, C 순으로 분류해 사용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나타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박재읍 연구관은 “약제별 작용기작 표시 제도는 사용자가 약제를 뿌리기 전에 표시기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약제저항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오디 위생관리 손쉽게 따라해 보세요

- 농촌진흥청, 농가보급용 '오디 위생관리지침'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오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오디 위생관리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위생관리지침은 2014년부터 재배포장 및 오디 열매에 대한 유해미생물 오염도 조사, 영농작업 및 농장관리 방법에 따른 안전성 영향 분석, 과실 숙기가 오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보급용으로 만들었다.
- 위생관리지침은 재배단계 5, 수확단계 3, 수확 후 관리단계 4항목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총 12개 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 재배단계 5항목은 △ 토양 피복하기 △ 과실에 직접 닿지 않게 물 주기 △ 작업도구 청결하게 관리하기 △ 농장에 동물 출입 금하기 △ 농장 주변 환경 청결하게 관리하기다.
- 수확단계 3항목은 △ 수확용 그물망은 토양과 닿지 않게 설치하기 △ 수확할 때 깨끗한 장갑 착용하기 △ 위생적인 수확용기 사용하기다.
- 수확 후 관리단계 4항목은 △ 수확 후에는 바로 냉동 창고에 넣기 △ 포장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하기 △ 균핵병에 걸린 오디나 이물질은 제거하기 △ 작업 후에는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하기다.
- 이 지침은 GAP 인증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지침을 준수하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오디 위생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오디 GAP 생산가이드'도 출간할 계획이다.
- 한편, 오디는 과육이 연해 쉽게 물러져 대부분 수확 직후 바로 냉동해 저장 및 출하하기 때문에 오디 열매 자체에 유해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미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류재기 유해생물팀장은 “위생관리지침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본 지침이 GAP 인증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기능성·수출용 버섯 품종 개발로 보급률 향상 이끈다

- 농촌진흥청, 차세대 버섯 4품종 육성... 2021년 보급률 60% 목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산 버섯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이 높은 버섯과 수출용으로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내놨다.
- 국내 버섯산업은 재배시설의 규모화로 재배 면적은 계속 줄고, 수출 둔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생산량과 생산액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이 강화된 버섯품종은 아위느타리 '에르고'와 'GW10-45'이다. 이들 품종은 항산화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높다.
- 이 두 새 품종은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많은 노랑느타리보다 69~104% 높아 식용뿐만 아니라 항노화 및 미백작용 화장품과 식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 'GW10-45'는 '에르고'보다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더 높고, '에르고'는 버섯 모양이 좋은 특성이 있다. 이 품종들은 국내 큰느타리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큰느타리2호'를 대체해 우리 품종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발한 수출용 버섯 품종은 '백황'과 '설원'이다. 이들 품종은 분자육종기술을 이용해 종간교잡으로 육성했다.
- '백황' 품종은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의 교잡으로 백령느타리를 닮았다. 백령느타리는 저온처리를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 반면, '백황' 품종은 재배가 비교적 쉬운 아위느타리의 특성을 살려 저온처리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 또한 '백황' 품종은 홍콩이나 대만 등에 높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일본의 종간교잡 품종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더 쫄깃해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설원' 또한 종간교잡주로서 갓을 크게 만든 품종으로 스테이크 용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개발한 새 품종의 농가 실증시험 결과, '에르고'는 수량이 높게 나왔고, '백황'은 갓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났으며, '설원'은 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실증 농가에서는 “직접 '백황' 품종을 재배해보니 큰느타리 보다 버섯 모양이 크고, 갓 색깔이 연백색으로 보기 좋으며 백령 느타리와 달리 한달 동안 저온 저장할 수 있어 수출상품으로 적합해 통상 실시만 끝나면 바로 홍콩이나 호주로 수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에르고·백황 품종은 지난 3월 품종보호 출원했으며, 올해 7월경 통상 실시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GW10-45·설원 품종은 특허 출원 했으며 앞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 보급이 이뤄진다.
- 또한 에르고·백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일본·미국·중국 등에 국외출원을 준비 중에 있다.
-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종균배양소, 생산농가와 연계한 시범 사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농가로 새 품종 보급을 확대해 2015년 기준 국산 품종 보급률 50.3%에서, 2021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7. 정책 동향

### ◆ 기후변화 대응 전남 포도산업 발전 지원

- 기후변화 연구를 통해 적정 포도 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올해부터 5년동안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응한 포도의 적응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남지역의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까지 372ha 였으나 FTA 폐원 보상금 지원에 따라 재배면적이 198ha로 46% 감소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야간고온이 지속됨으로 인해 착색불량, 당도저하 등으로 재배상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전남에서 소비가 가능한 포도 면적은 1,000ha로 보고 있는데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해 전남에서 소비될 포도의 외부 유입량과 포도 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최근 이상기상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전남에서 80% 이상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인 '캠벨얼리'의 착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잘 익은 포도를 상징하는 흑색이 아닌 덜 익은 적색포도의 생산이 증가되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캠벨얼리' 품종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육성된 '진옥' 품종을 비교하여 기후변화에 적응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 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콩·팥·녹두 등 주요 두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농가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25,150톤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확대 등 적정면적 감축(3만ha) 계획을 반영하여 수매품목과 수매물량을 확대하였다.
- 콩은 지난해 2만톤 수매계획(실제 수매량 1.1만톤) 대비 5천톤 증량한 2.5만톤을 수매할 예정이며, 팥과 녹두는 각각 100, 50톤을 처음으로 시범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매가격은 콩의 경우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팥·녹두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최근 10개년 평균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수매품에 대한 상품가치 유지를 위해 기존 상온보관에서 저온보관 방식으로 개선하여 가공업체 등 실수요업체 요청을 반영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산 국산 두류 수매계획에 따른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16년 7월 31일까지 수매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2016년 쌀·밭직불금 신청농가 늘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총 1,585천 농가에서 1,352천ha가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대비 농가수는 3.6% 증가, 면적은 0.6% 감소한 수치이다.
- 쌀직불금의 경우 신청 농가수는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으나, 신청 면적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신청 면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밭직불금은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25만원/ha → 40만원)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 수는 9.1%, 신청 면적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대비 각각 농가수 7.4%, 면적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직불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 적법한 지급을 하기 위해 신청인 및 농지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농지 무단점유 여부, 신청자격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이행점검과 농약잔류검사를 거친 후 대량검증 등을 실시한다.

-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이행점검 업무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되고 스마트팜맵 구축을 통한 최첨단 기법으로 직불금 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가리게 된다.
- 올해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향후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에게 경고문을 보내는 등 농업인 등이 직불금 부당신청 및 부당수령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 등은 신청 및 수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상에는 부당 수령 뿐 아니라 부당 신청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자에게는 등록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전남에서 처음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 외국인 대상 친환경 농업연수 실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일환인 KOICA 글로벌 연수과정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기술 연수”를 전남에서 최초로 5.15.~6.4.까지 3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는 르완다·베트남·라오스·이집트등 11개국 16명을 대상으로 전남의 특화된 친환경 재배기술, 합성농약 대체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을 소개하며 유기농 명인들의 재배현장 견학과 판매 시장을 둘러보고 각국의 현실에 맞게 친환경 농업을 접목시키도록 도와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이번 연수에 참여한 라오스의 바나콩 세소망(Vanakone Sesommang)씨는 딸기·단감·배 등 소득 작물에 대한 친환경 농업기술을 라오스에 접목시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비록 짧은 3주이지만 전남의 높은 친환경 재배기술을 배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성일 농업기술원장은 “친환경 농업기술 연수는 3년 동안 추진 하는 사업으로 전남의 선진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할 계획이며,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KOPIA 새마을 운동으로 전기 황무지가 옥토로

- 농촌진흥청, 필리핀 일로일로 새마을 시범마을에 양수시설 준공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7일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KOPIA 농업기술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필리핀 일로일로(Iloilo)주 덩레(Dingle)시의 시니바안에 양수기 설치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고 완공식을 개최한다.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 필리핀 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루손·일로일로·보홀 3지역에 벼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을 위해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 특히 일로일로의 시니바안(Sinibaan)지역의 전기 벼농사는 강우에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이 심할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 KOPIA 시범마을에서는 이 지역 50ha 천수답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리안전답 조성 수로개설 사업을 추진했다.
- 시범마을 옆으로 해마다 상류 댐에서 하천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방류수를 내보내는 할라우강이 있어 수자원으로 활용해 전기에도 벼농사가 가능하도록 수로개설 사업을 진행했다.
- 공사는 2015년 한국에 초청돼 새마을운동 교육을 이수한 마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농민조합에서 적극 참여했고, 일부 논주인들은 무료로 수로개설 부지를 기부하기도 했다.



- 이번에 만든 수로는 2.7km이고, 강물 취수시설과 펌프실을 만들었으며 85마력의 양수기를 설치했다.
- 이 관개 시설을 활용하면 건기에 50ha 농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영농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노동력을 분산하고, 더 많은 면적에 벼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 일반 농가에 비해 2주에서 한 달 정도 빨리 수확해 다음 작기의 벼 종자 생산을 앞당길 수 있고, 건기에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 또한 KOPIA센터에서는 양수기 설치를 지원해 50ha 수답에 원활히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서부비사야농업기술센터(WESVIAC)의 벼 종자를 생산하는 등 그 활용도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이 사업을 통해 건기 벼 재배를 통한 일부 수익을 마을자조금으로 형성하며, 제2, 제3의 마을발전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민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교육과 KOPIA의 농업기술 지원을 새로운 희망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KOPIA 필리핀 센터의 벼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복지농촌으로 향하는 필리핀 농업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주고, 우리의 우수 농업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로 뭉쳐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농업

- 농촌진흥청, AFACI 제4차 총회 스리랑카에서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8일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제4차 총회를 스리랑카 콜롬보 라비니아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이번 총회는 베트남·태국 등 AFACI 14회원 나라와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등 2국제기관의 농업부 장·차관 및 농업연구기관장 등 총 90명이 참가해, 신임 의장단 선출, 신규회원나라 가입 협약 체결, 유전자원 중복보존 협약, 우수사업 발표 등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이번 총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FAO-GCDT)으로부터 '세계 종자중복보존소'로 지정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유전자원의 중복보존을 희망하는 필리핀·인도네시아·라오스·키르기즈공화국 4회원 나라와 '유전자원 중복보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로써 유전자원의 중복보존은 모두 9회원 나라로 늘었고, 농촌진흥청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이어 세계 제2의 종자중복보존소로서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 또한 '자원교환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이 동시에 체결돼 농업연구 개발을 목적으로는 회원나라 간에는 유전자원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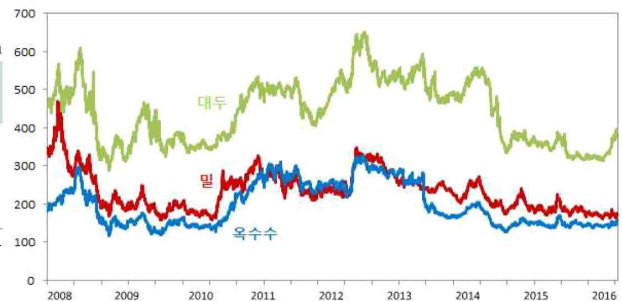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5. 23.(시카고 선물거래소)

기술적 거래로 밀 가격 하락, 옥수수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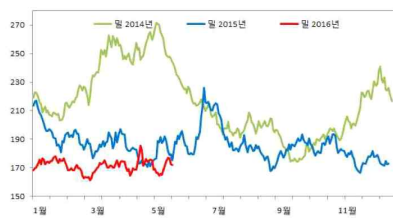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5.20)	전일대비	전월평균 ('16.4)	2015 평균
밀	171.81	▼0.2%	173	186
옥수수	155.27	▲1.1%	147	148
대두	394.69	▲0.3%	354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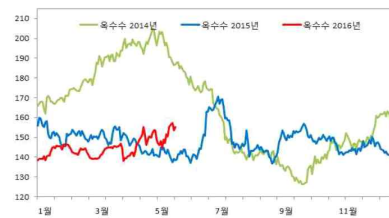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혼조세를 보인 후 기술적인 매도세 유입으로 금일 하락 마감하였음. 풍부한 미국과 세계 밀 재고량은 시장에 가격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제한정책 완화 및 수출세 변화로 인해 2016/17시즌 밀 재배면적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인 530만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급주 초반 대두 및 대두박의 강세로 인해 상승세를 보인 후 전일 2% 이상 급락하였으며, 이후 금일 기술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미국 여름 생육기간동안의 기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격을 지지하였음. USDA 보고에 따르면 민간 수출업체가 미국산 옥수수 125,000톤을 콜롬비아에 판매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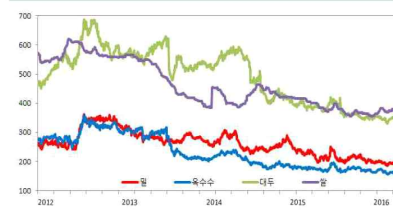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대두박 강세로 일부 가격지지를 받았으며 금일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대두박 선물은 대두박 최대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지난달 폭우가 계속됨에 따라 대두 생산량 및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하였음. 선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두박 현물가격은 보험세를 유지함. 대두유 선물가격은 대두박/대두유 스프레드로 하락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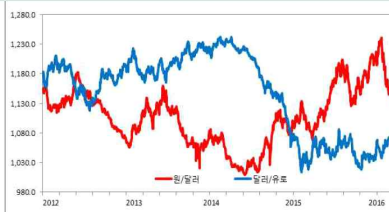
## 관련동향

- 미국 곡물 수출가격 전반적으로 하락, 옥수수는 브라질 가뭄으로 인한 수출수요 강세로 하락폭 제한
- 국제유가는 공급차질 우려 완화, 미 원유 시추기 수 감소세 둔화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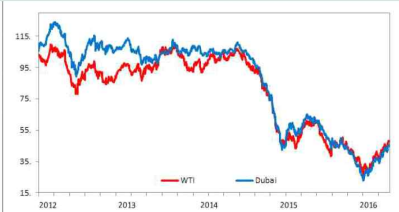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4	▼2.0%	환율	원/달러	1,190.8	▲0.8%
	옥수수	173	▼2.3%		달러/유로	1.1202	▼0.2%
	대두	407	▼0.2%	국제유가	WTI	47.75	▼0.9%
	쌀	425	▼1.2%		Dubai	45.65	▲2.0%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6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5.19(수출가격), '16.5.20(환율), '16.5.2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 참가하세요

- 전남도, 5월 말까지 시·군서 접수...입상 3곳 7월 중앙대회 추천 -

- 전라남도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시·군을 통해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 참가 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임산물 모두 가능)이다. 개별 농가 또는 집단 인증 신청농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GAP를 인증 경위, 농가만의 GAP 실천 비법, GAP 이행 이후 바뀐 모습 등을 작성해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전라남도는 5월 31일까지 시·군별 우수사례 1건씩을 추천받아 서면(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3건을 선정, 7월 중 개최되는 농식품부의 중앙경진대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 중앙경진대회에선 대상 1점 500, 금상 2점 각 300, 은상 3점 각 200, 동상 4점 각 150만원, 총 10점에 2천 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앙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농촌진흥청, 어려운 농업용어 알기 쉽게 순화

- '화뢰', '간단관수', '도장지' 낯선 말 무슨 뜻?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이번 달 31일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농업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
-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업관련 법령, 교과서 등 각종 영농활용자료에 사용되는 어려운 농업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고쳐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예를 들어 '화뢰'는 '꽃봉오리', '간단관수'는 '물 걸러대기', '도장지'는 '웃자람가지'를 뜻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업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 설문 참여자는 어려운 농업용어를 찾아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과 각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 이번에 추가 발굴된 용어는 국어전문가와 농업전문가가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활용,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설문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앞으로 농업용어 순화 사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알기 쉬운 농업용어의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86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